

# 단계적 일상 회복 맞춰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 시동

## 도, 남도한바퀴·트래블 버블 국가 등 홍보 집중 지역특화 여행상품 판매·패키지 플랫폼 개발도

전남도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비, 맞춤형 관광마케팅에 시동을 건다.  
전남도는 28일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전환에 맞춰 지역 관광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전남워터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멈춘 남도한바퀴 여행을 재개하고 남도여행 으뜸상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준비하는 한편, 트래블 버블 국가 대상 전남 상품 홍보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는 11월 8일부터 22개 노선을 재개하고 합평 대한민국극항대전 특별상품도 수시로 선보일 예정이다.

'남도여행 으뜸상품, 전남으로 체험여행 가자' 특화 여행상품'은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로 운영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였다.  
코로나19 완화 등에 대비해 7월부터 인센티브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금액 상향, 신청서류 간소화 등 정책을 추진해 여행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7월 추진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정책은 지난해 10월 시작했으나 1개월 만에 중단된 상태에서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정부 정책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어려운 지역 관광업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품의 인지도·우수성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전남 여행상품을 판매할 방안을 마련해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막혔던 해외 관광시장의 경우 트래블 버블 국가 대상으로 전남 상품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외래객 유치에 나선다. 이미 지난 6월 외래객 맞춤형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무안국제공항에 구축했다. 해외 여행사와 항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인바

운드 전세기 유치 등도 추진한다.  
상반기에 일본, 구미주·동남아 등 랜선 라이브 투어 관광객에게 호응이 있었던 썬더 만들기, 꽃차 만들기 등을 실제 전남에 와서 즐기는 상품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여수항, 목포항 등 향후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항만 VR영상 및 크루즈 종합 홍보물 등을 제작해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11월 강원도 국제크루즈 트래블 마트에 참가해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이 밖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미래관광을 위한 전남상품 인센티브

운영 자동 프로그램 및 전남패키지 관광상품 플랫폼 개발도 추진해 전남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전국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전남 관광 콘텐츠 및 전남상품 본격 운영을 알리는 관광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전남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이 전남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도록 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민주 전남도당, 142명 복당 허용

내년 대통령선거(3월9일)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권 재창출 등 대선·지선 승리를 위해 조직 확장에 나섰다.  
28일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 김승남 도당위원장 주재로 연 제13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무직 당직 신규 임명 및 당원자격심사위 복당 심사 결과 승인의 건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남도당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문택 전 전남도당 민원소통국장 등 도당 부대변인 ▲고화자 전 영암군의회 의원 민생소통특별위원장 ▲이재각 전 총북지방병무청장 농수산자원유통특별위원장 ▲조재환 행정사를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이민석 담양지역위원회 청년부위원장을 청년농업육성특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18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신규 임명했다.  
또 최근 복당서류를 제출한 탈당자 159명 중 김정심씨(목포) 등 142명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보류 및 재심사 등의 결정을 내렸다.  
/임후성기자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개소 28일 오후 동구 서남동 인쇄 집적지에서 열린 ‘광주인쇄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내빈들이 인쇄기술기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DJ 정신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하자”

### ‘2021 김대중 평화회의’ 평화선언문 채택 폐막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민주·인권 정신을 계승, 세계화하기 위해 열린 2021 김대중평화회의가 28일 ‘김대중 정신’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김대중평화회의의 창립회의 평화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2021 김대중평화회의는 역경과 고난을 희망으로 승화한 ‘김대중 평화정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끊이지 않는 전쟁과 빈곤 등 전지구적 위기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일원에서 이날까지 사흘간 열렸다.  
특히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등 세계적 지도자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 석좌교수, 베르너 페니히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희종 대구교, 호프 엘리자베스 메이 샌트렐미시건대 교수, 국제적 평화·인권전문가 등 35명이 참여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하도야 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폐회식에서 이틀간 다양한 주제를 활발하게 논의해 실현방안을 담은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인간 간의 존엄과 연대, 인간과 자연의

상생과 공존을 통한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유산을 전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세계 속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담았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폐회식에서 “전남은 올해를 ‘김대중 정신, 평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김대중 평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품격있는 국제행사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대통령이 가고 자란 신안 하의도 생가 주변에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해 소년 김대중의 흔적과 숨결을 느끼도록 하고 목포 삼학도에 ‘김대중, 넬슨 만델라, 빌리 브란트 평화공원’을 조성해 세계평화 정신이 깃든 글로벌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방침이다.  
/김재정기자

## “하수도사업 국비 보조율 개선해야”

### 전국시도의장협회, 광주시의회 제안 ‘건의안’ 채택

28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국비보조율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건의안에는 공공하수도 설비, 개축 사업에 대한 특·광역시 국고 보조율을 국가보조사업 전국 평균인 50%로 상향한다는 것과 하수도 사업은 수계별·지역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사업임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하수도 사무는 도(道)의 경우 대부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특·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맡지 않고 광역단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또 특·광역시 하수도 사무의 시설 확충 분야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10%에 그

치고 있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하수도는 시민 안전 확보 및 방류수 수질개선을 통한 건전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인데, 하수도 신규 보급과 노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장협의회는 특·광역시 하수도 사업 중 공공하수도 설치와 개축 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건의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하수도 사무는 중요한 공적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요금 현실화만을 이야기할 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 광주시,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 개최

### 29일 대통령상 수여 김치경연·30일 응용요리 경연

광주시는 29-30일 광주김치타운에서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와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28회 광주세계김치축제 대표 프로그램이다. 전국 요리대회 중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29일, 김치의 세계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는 30일에 열린다.  
김치경연대회는 모집공고와 서류 심사를 거친 20명이 지난 15일 지정 종목인 숙성 김치로 1차 경연을 치렀으며, 29일 일일 자유선택김치로 2차 경연을 실시한다.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는 19팀(단체 또는 2인)이 학생부, 일반성인부, 외국인부 3개 분야에 참여한다.  
식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전문성과 독창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은 대통령상과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원을, 김치응용요리 경연대회 최우수상에게는 시상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는 전국에 숨어있는 김치 장인 발굴을 위해 매년 김치축제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며 “김치종주도시로서 김치문화 전승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www.gaok.or.kr

## 지방자치 스위치 ON! 중앙-지방 협력의 시대가 열린다!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30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키워갑니다.








지방자치의 날은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여 2012년 제정되었습니다.